



# 비영리 리더스쿨 4기의 모금콘텐츠

최근 비영리단체의 모금과 홍보 전략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모금을 위한 사연들을 스토리텔링해서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질 높은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 담당자들이 알리고 싶은 홍보 및 모금 콘텐츠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현직 기자들이 직접 탐사했습니다.  
우수 사례로 뽑힌 8개 단체의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 대학생들, 생활정치로 목소리 높이다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박장선 사무국장

‘장애인 복지관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자’, ‘동일역 환승제도를 개선해 지하철 개찰구를 잘못 통과해도 15분 이내 추가요금 없이 반대편으로 이동 가능하게 만들자’, ‘심장 제세동기(AED) 설치 의무화 장소를 확대하자’...

이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한 사람들은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니다. (사)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정책연구단 마이폴(myPOL·이하 대학생정책연구단)’의 3기 대학생들이다.

생활정책연구원은 2016년 6월 당론과 정치이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창립된 시민단체다. 말 그대로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을 제안한다. 거대담론이나 엄청난 정책이 아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민주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설립 초기부터 대학생정책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4월부터 12주간 정책활동을 했던 대학생정책연구단 3기 43명의 수료식이 열렸다. 조별로 기획하고 실행했던 8개의 생활정책을 발표하는 경연대회도 함께 열렸다. 장애인 선거권, 심장제세동기 설치, 서울시 종량제봉투 사용, 교통안전 보장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정책연구단 3기 수료식 현장. ©생활정책연구원

박장선 생활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심장제세동기 설치 구역 확대 및 관련 규정 개선 정책은 의원실 2곳에서 입법발의 의사를 밝혔고, 학교 내 안전시스템 개선 방안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공동으로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왜 하필 생활정치일까. 지난 19대 국회에서 약 1만50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다(의원입법). 이중 통과된 것은 10%도 되지 않는다(경실련 발표 참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법안은 정치싸움으로 배제되기 일쑤다. 당론·이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깨알 같은 법안들을 발굴하고 연구해 시민의 힘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다.

생활정책연구원이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할인 기준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인 24세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것. 대학생정책연구단에서 직접 정책안을 만들고, SNS 서명캠페인을 진행해 이틀간 1만5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젊은 정치를 표방하는 만큼, 페이스북이 주된 소통 채널이다. 대중교통청소년요금할인 SNS 캠페인은 170만뷰를 달성하기도 했다.



대학생정책연구단이 지난 4월 신촌역 명동거리에서 펼친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확대를 위한 포스트잇 캠페인 현장. 청소년 요금할인 기준을 24세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생활정책연구원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은 이어졌다. 온라인의 들끓는 여론을 확인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 위원회가 관련 정책토론회를 제안한 것. 2016년 11월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할인을 주장한 대학생정책연구단 1기 대표가 참석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별한 것은 주된 활동을 펼치는 주체가 대학생들이라는 것이다. 대학생정책연구단은 봄학기 와 가을학기, 1년에 2개 기수를 선발해 운영한다. 대학생들도 각자 회비(5만원)를 내고 모여, 목소리를 높인다. 운영 전반은 전(前) 기수에서 선출된 다음 기수 기획단이 정한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학 입학 앞두고 있어도, 졸업한 사람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대학생정책연구단 3기 리더였던 신승현(동국대 4) 회장은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해소, 청년고용 등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체감되는 것도 바뀌는 것도 없다”며 생활정치에 주목하는 이유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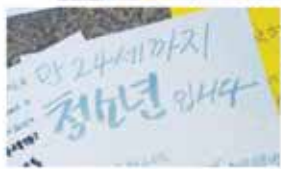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나 이념, 숫자로만 말하는 일자리 정책들이 아닙니다. 저희 청년들과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생활 정치의 의미에 공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깨알정책 선봉장에 서보지 않으실래요?”

## 대학생들, 생활정치로 목소리 높이다

### 새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장애인 복지관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자’, ‘동일역 환승제도를 개선해 지하철 개찰구를 잘못 통과해도 15분 이내 추가요금 없이 반대편으로 이동 가능하게 만들자’, ‘심장 제세동기(AED) 설치 의무화 장소를 확대하자’...

이 같은 생활민원적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한 사람들은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니다. 새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활정책연구원 마이폴(myPOL·이하 대학생활정책연구원)’의 3기 대학생들이다. 생활정책연구원은 2016년 6월 당론과 정치이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창립된 시민단체다. 말 그대로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을 제안한다. 기대 당론이나 엄청난 정책이 아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민주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설립 초기부터 대학 생활정책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다.

생활정책연구원이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할인 기준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인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 대학생활정책연구단에서 직접 정책안을 만들고, SNS 서명캠페인을 진행해 이틀간 1만5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좋은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페이스북이 주된 소통 채널이다. 대중교통청소년요금할인 SNS 캠페인은 170만뷰를 달성하기도 했다.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은 이어졌다. 온라인의 틀을 깨는 여론을 확인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관련 정책 토론회를 제안한 것. 2016년 11월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할인을 주장한 대학생활정책연구원 1기 대표가 참석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별한 것은 주민 활동을 펼치는 주체가 대학생들이라는 것이다. 대학생활정책연구단은 봄학기 와 가을학기, 1년에 2개 기수를 선발해 운영한다. 대학생들도 각자 화비(5만원)를 내고 모여, 목소리를 높인다. 운영 전반은 전(前) 기수에서 선출된 다음 기수 기획단이 정한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학 입학은 앞두고 있어도, 졸업한 사람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대학생활

생활정책연구원 3기 대학생생활정책연구단이 지난 4월 신촌역 명동거리에서 열린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확대를 위한 포스트잇 캠페인 현장.

정책연구단3기 리더였던 신승현(동국대 4) 회장은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해소, 청년고용 등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체감되는 것도 바뀌는 것도 없다”며 생활정치에 주목하는 이유를 말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나 이념, 숫자로만 말하는 일자리 정책들이 아닙니다. 저희 청년들과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생활정치의 의미가 공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개발정책 선봉장에 서보지 않으실래요?”

경청해 더너우에라 기자

※이 기사는 더너우에라와 동그라미재단이 진행한 ‘비영리 리더스쿨 4기’ 취재·보도자료 작성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비장선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의 글을 토대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나도 작가가 되고싶어요’... 25회 글그림잔치

## 빈곤가정 아이들에게 작가의 꿈을 선물하세요

### 부스스리기사랑나눔회 강보경 팀장

“나는 매일 엄마를 기다립니다.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서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야 합니다. 엄마는 갑자기 와서 나를 기쁘게 하고, 갑자기 가서 나를 슬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나의 빛입니다.”

10살 영현(가명)이가 털어놓은 마음속 이야기는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시는 읽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울립니다.



©부스스리기사랑나눔회



## 빨리 어른이 되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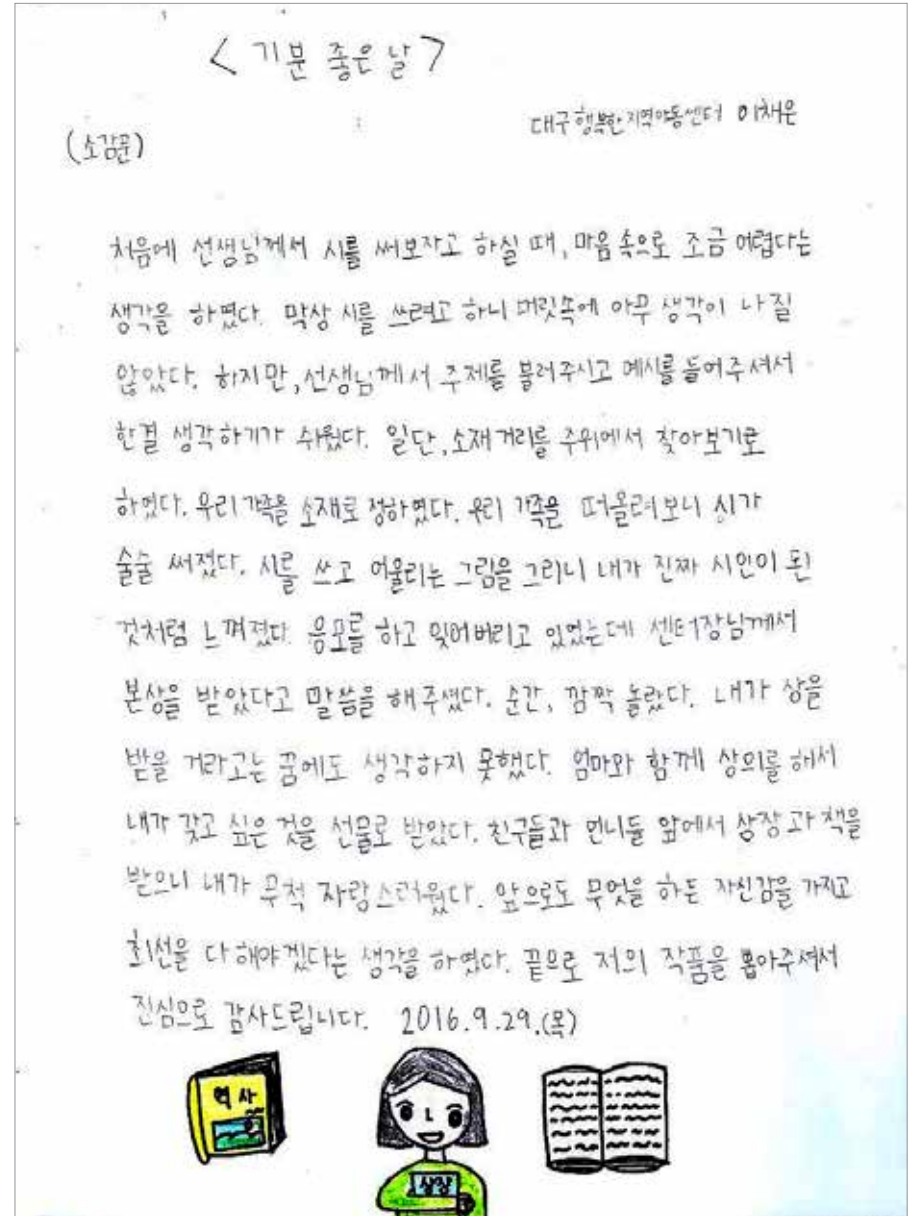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영현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빈곤한 환경의 아이들은 외롭고 힘든 마음을 떨어놓을 곳이 없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많습니다.

마음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건 영현이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수는 2005년 1370 가구였던 것에서, 2014년 1749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보는 조손가족이나 다문화가구 또한 매년 늘어납니다. 이 밖에서 쉼터와 같은 임시보호시설 등 가정의 형태는 점점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빈곤환경의 아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본인의 이야기를 터놓고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한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스리기사랑나눔회에서는 1991년부터 ‘글그림잔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이나 쉼터, 복지기관 등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결연장학생 등 아동과 청소년에게 글이나 그림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터놓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엔 1400여기관에서 2500여명의 아이들이 ‘글그림잔치’에 참여해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24회 글그림잔치에 참여한 아동의 소감문 ©부스리기사랑나눔회

## 그럼 나도 작가가 된건가요?

“선생님, 그럼 저도 작가가 된거예요?”

부스레기사랑나눔회의 글그림잔치는 올해로 25주년입니다. 글그림잔치를 통해 접수된 작품들은 모임집으로 엮어 책으로 발간해 아이들에게 선물합니다. 아이들은 본인의 글이 책으로 나오는 것이 뿌듯합니다.

글을 통해 위로받기도 합니다. “나만 힘든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 위로가 된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세요!



1만원으로 사회문제 함께 해결하는 법

## 노숙인과 숲이 함께 변화하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생명의숲국민운동 신혜영 팀장

숲을 가까이 접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일수록, 숲과 자연을 가까이 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럴싸한 대형공원이나 잘 차려진 아파트 조경시설 보다, 모두의 일상 속에, 소소하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숲이 있다면 어떨까요?

생명의숲은 1998년 ‘숲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시민환경단체입니다. 학교, 도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무를 심고 시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활동을 합니다. 숲문화, 교육, 보전 활동을 통해 숲과 사람을 잇고 사람들 마음에 나무를 심습니다.

생명의숲과 함께 누구나 일상에서 숲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노숙인이 숲을 만났을 때  
- 28일,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



카드뉴스 커버 ©생명숲



“ 노숙인, 처음엔 무섭고, 걱정이 많았죠.  
매일 노숙인 실습생들과 함께  
식물을 배우고 공원을 가꾸며 알았어요.  
모두 내 선임견이었다는 걸.”

- 봉사 팀장님 가드너 -



1



2016년 9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매일 아침 7시30분부터 4시간  
10명의 노숙인이 용산공원에 모였습니다.



2



28일, 112시간  
단 한 명의 지각이나 결석 없이  
노숙인들은 공원 화단을 가꾸고  
식물을 배웠습니다.



3



그렇게 그들은 가드너가 되었습니다.



4






**“살자”**

15번 자살을 시도했던 노숙인 A씨가  
교육 마지막 날  
자신에게 남긴 말입니다.




5



**“나도 할 수 있다”**

젊은 나이에 노숙의 삶을 선택한  
34살 B씨가 스스로를 토닥입니다.



6



순과 함께 한 28일,  
편견이 사라지는 시간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시간  
어름다운 변화의 씨앗을 발견하는 시간



9



식물을, 꽃을, 숲을  
가까이 하고  
생명을 돌보는 삶을  
경험하는 것의 힘



10



식물을 만지며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의 손길로 달라지는 화단을 보며  
재미를 느꼈습니다.



7



10명의 교육생 중  
3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갔으며  
2명은 서울로7017의 가드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8



모두의 일상 속에서  
소소하지만  
누구나 숲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11



**“누구나 숲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세상”**

생명식물과 함께 만들어요.  
정기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www.forest.or.kr](http://www.forest.or.kr)



12

본드 중독 **문제아**에서  
위기청소년 품은 **1등 선생님**으로

## 청년 교사의 인생스토리

세상을품은아이들 임상엽 실장

그의 어릴 적 별명은 ‘문제아’였다. 숨을 들이마시면 온몸이 나른해지는 ‘약’을 즐겨하다 ‘큰 집(소년원)’에 들어갔다. 중학교도 중퇴했다. 다섯차례의 정신병원 입원, 3번의 재판을 거친 소년원 입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둠은 점점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론 안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기 때문.

"내가 겪었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그는 더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문제아’로 불리던 그의 이름 뒤엔 ‘선생님’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위기청소년 공동체인 ‘세상을품은아이들(이하 세품아)’에서 생활지도교사로 활동 중인 김진영씨의 이야기다.



2017 세품아 자전거국토종단에 참가한 청소년과 생활지도교사 김진영(왼쪽)의 모습. ©세상을품은아이들

### 강해지고 싶었던 ‘독립군’, 일탈을 택하다

세품아는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의 치유와 자립을 돕는 위기청소년 공동체다. 상처 치유를 위한 음악·여행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내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지원한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300명의 위기청소년들이 세품아와 인연을 맺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자 ‘문제해결자’로 성장해왔다.

김진영씨 역시 세품아 출신이다. 김씨는 “나의 비행은 몸이 약한 나를 타인으로부터 방어하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입을 열었다. 실제로 그는 몸이 약했다. 태어난 지 100일 무렵, 신장에 이상이 생겨 소변 배출 기능을 상실한 신장 하나를 제거해야만 했다.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로해졌고, 또래에 비해 몸집도 왜소했다. 그럼에도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진’ 그룹에 속한 요주의 인물이었다. 어머니의 폭력도 그의 일탈을 부추겼다.



“첫 가출은 10살때였습니다. 팬티 한 장만 입고 매를 맞다가 도저히 못견디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1학년 때부터 학교도 자주 빠졌죠. 초등학교 선생님과 어머니의 체벌이 너무 심해서,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동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죠.”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상처 받은 그는 방황을 계속했다. 인근 고등학생 형들과 어울리던 김씨는 처음으로 물건을 훔쳤다. 담배와 술을 접한 것도 이 시기였다. 가출을 많이 해서 또래 친구들과 사이에서 ‘독립군’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거리에서 만난 형들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쳐오라고 시켰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성공할 때마다 형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강한 척을 하고, 일탈을 반복하게 됐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때 김씨는 본드를 처음 경험하게 된다. ‘신기한 경험’이러던 친구들의 말이 충동의 방아쇠를 당겼다.

## 방황의 끝, 삶을 바꾼 두 명의 아버지

“실내에서 본드 흡입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거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억이 끊긴 상태였는데, 저는 순간이동을 했다고 믿었어요.”

김씨는 본드가 주는 환상에 매료됐다. 본드를 할 때면 스파이더맨처럼 손목에서 거미줄을 발사하는 슈퍼히어로가 되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환상이 진짜처럼 느껴졌다. 본드가 주는 즐거움이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가 본드를 끊지 못한 이유다.

2009년 중학교 3학년이던 김씨는 학교 폭력에 대한 징계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당시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던 때였다. 선생님과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무려 5번이나 강제 입원됐지만, 퇴원한 뒤 바로 본드에 손을 댔다. 결국 그는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소년원에 가게 됐다. 소년원 퇴소 이후 한 달만에 아버지가 사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친구들과 다시 본드를 했다. 아들의 새 삶을 바라던 아버지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다.

이듬해 겨울, 김씨의 나이 17세 되던 해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마침 근처에 있던 김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제일 먼저 도착했지만 아버지의 손은 이미 차갑고 딱딱하게 변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저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에 휩싸여 자살기도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몸이 아프신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위해 돈을 벌어야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때부터 김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일용노동직부터 시작했다. 굴삭기와 지게차 등 기술을 배우는 훈련생으로도 생활했다. 그러나 약해진 체력과 좁은 취업문은 그를 좌절시켰다. 그러나 가족을 생각하면 다시 방황할 순 없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는 명성진 세피아 이사장(부천 예수마음교회 목사)을 찾아갔다.

“목사님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7년입니다. 트럭 밑에서 잠을 자던 저를 교회로 데려가 밥을 먹고, 몸을 씻기고, 옷을 주셨죠. 또 가출을 하더라도 잠은 교회에서 자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친구들까지 다 몰려 와서 교회가 ‘문제아’들로 넘쳐났어요. 목사님은 하루종일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본드 중독을 막기 위한 목사님 나름의 방법이었고. 무섭게 혼나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나중엔 음악을 가르쳐주셨어요. 목사님의 따뜻한 손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목사님이 떠오르더군요.”

## 내 아픔마저 닮은 아이들

김씨는 세품아에서 생활하며 가스, 배관 전문 기술학교에서 훈련생 과정을 시작했다. 통학하는데만 왕복 4시간 이상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김씨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훈련을 받고 돌아오면 녹초가 됐지만, 세품아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생들이 그에겐 활력소였다. 세품아에서 만난 아이들은 자신처럼 가출과 범죄를 반복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폭력과 학대 등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받았던 아픔들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나와 비슷한 과거를 안고, 나의 아픔까지 닮아있는 이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한참 고민 끝에 ‘청소년 상담가’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평소 ‘형처럼 나도 달라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 동생들 덕분에 저도 자신감이 생겼고요.”



세품아 생활지도교사 김진영(왼쪽에서 두번째)씨가 아이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상애피아이들

목표를 정한 김씨는 고졸 검정고시 준비부터 시작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었지만 전혀 창피하지 않았단다. 2번의 검정고시, 대학 입시 재수를 거쳐 2015년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학과에 당당하게 입학했다.

“합격 통지를 받고 명성진 목사님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 해 4월, 세품아 생활교사로 정식 입사했습니다.”

생활교사로 2년 넘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져 힘에 부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시금 의욕이 솟아났다.

“세품아에 새로 들어온 열아홉살 친구와 샤워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말수도 적고 적응을 잘 못하던 친구였는데 먼저 샤워를 같이 하자고 해서 조금 의아했어요. 그러더니 대뜸 ‘형, 저도 6학년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형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들어서 꼭 함께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라더군요. 사실 아버지께서 스스로 삶을 끝내신 게 나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때가 많았고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됐죠.”

파란만장했던 청소년기의 경험, 군대를 면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정형편, 정기적인 치료 없인 일상 생활조차 불편하신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의 이야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무게... 그때부터 김씨는 세품아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주저없이 할 수 있게됐다. 그는 “우리 세품아 공동체에 오는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 숨기고 싶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상처는 걸로 드러내야 더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야기길 통해 자신의 상처를 보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면 더 빨리 치유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씨는 세품아에서 ‘최고의 선생님’으로 불린다.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기 때문. 올해로 교사 3년차인 김군은 지난 6월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 중주도 다녀왔다. 일주일 동안 강원도 고성에서 경상북도 포항 호미곶까지, 동해안 400km를 함께 달렸다.



2017 세상을품은아이들 자전거 국토 종단 을 하는 김진영 생활지도교사(왼쪽)와 청소년의 모습. ©세상을품은아이들

“신장 기능이 약해 쉽게 피곤해지고 입술이 갈라지는 제겐 자전거 종주가 한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음엔 백두대간 종주,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도 함께 도전하고 싶어요. 혹시 제가 넘어지더라도 저를 일으켜줄 아이들이 함께 있어서 든든합니다.”



## 효민·형민 가족에게 절망대신 희망을

한국청소년연맹 정필수 차장

### 나란히 병상에, 희귀성 질병과 끝없이 싸워야 하는 남매의 고통



©한국청소년연맹

17살 효민이와 15살 형민이는 다발성 골연골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양이 뼈에 자라는 희귀성 질병입니다. 제대로 된 뼈의 성장을 방해하고 신경을 압박해 어른도 참기 힘든 고통을 유발합니다. 형민이는 12년째, 효민이는 7년째 병마와의 계속 싸워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술만 32차례. 팔과 다리에는 흉터로 가득하고, 형민이의 뼈에는 종양을



억제하기 위한 나사못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왼팔은 성장판 파열로 성장이 멎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시간과 아픈 수술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남매들의 마음 속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모님에게도 닥쳐온 질병의 시련



©한국청소년연맹

다발성 골연골종은 유전성 질환입니다. 남매의 엄마 손오숙씨도 같은 질병인 골부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밀린 병원비와 매번 수백 만원 이상의 수술비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아픔보다는 몹쓸 질병을 물려줬다는 죄책감이 엄마를 더 괴롭게 합니다.

벌써 12년째. 병마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가장인 홍주희씨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2009년 살던 집과 운영하던 보습학원을 처분하고, 처가의 방 한 칸에서 온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된 남매의 간병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어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질병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손상돼, 걷지도 못하고 다리에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아빠는 소리 없이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병마와의 싸움은 한 가족의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앗아갔습니다.

## “효민아, 형민아 학교가자”



©한국청소년연맹

효민, 형민 남매가 가장 꿈꾸는 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노래 부르기라고 말하는 효민이. 남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골연골종 종양억제를 위한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병원비와 앞으로의 수술비에 대한 막막함을 덜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술과 치료를 끝까지 이겨내고 웃을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가족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커피 한 잔으로 위기청소년 자립 돕는 방법

## 보노보 카페를 소개합니다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채진아 팀장

### 위기청소년을 바리스타로, 카페 보노보

그날도 어김없이 아빠의 폭력이 시작됐다. 견디다 못한 현수(가명)는 다급히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때 받았던 상처로 마음 둘 곳 없던 현수는 게임 중독에 빠졌다.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게임만 했고, 고등학교도 그만뒀다. 그렇게 2년이 흐르자 현수는 상대방의 눈을 못마주칠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졌다.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 대신 현수를 돌보는건 오로지 할머니의 몫. 할머니는 무릎 수술로 성치 않은 몸으로 야채가게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현수는 갑갑해졌다. 지겨운 가난도, 술에 빠진 아버지도, 삶에 체념한 자신의 모습도 벗어던지고 싶었다. 컴퓨터를 끄고 방을 나선 현수는 한 카페의 문을 두드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카페 보노보’다.



카페 보노보에서 일하며 바리스타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만드는 커피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좌절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곳엔 저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자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노보는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일터와 습터를 만들어주기 위해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이 2008년 세운 테이크아웃 커피 사회적기업이다. 수련관 내 12평 남짓한 공간에 카페 보노보가 자리하고 있다. 카페 보노보에선 미래의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커피 및 학업에 관한 무료 교육과 실습이 이뤄진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커피를 통해 사회성, 청결, 예의, 성취감 등 삶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자 배움터다.

현수는 보노보에 다니면서 180도 달라졌다. 게임 중독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웃 사이더’에서 어엿한 카페 직원으로 다시 태어난 것. 카페 보노보의 정식 인턴이 된 그는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꿈에 도전 중이다. 처음엔 컵 제대로 다루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메뉴 개발까지 제안할 만큼 열심이다. 실력이 느는 만큼 마음의 여유도 자라났다. 그만뒀던 학교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현수는 “그동안 고생하셨던 할머니를 위해 바리스타라는 꿈을 꼭 이루고 싶다”며 눈을 빛낸다.

현수처럼 카페 보노보로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와 멀어져있다. 이들은 가정, 학교 등에서 입은 상처를 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카페 보노보를 찾는다. 왕따를 당해 공황장애가 온 아이부터, 자신의 삶은 더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며 죽고 싶다는 아이까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아이들은 카페 보노보를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아갔다.

이들은 카페 보노보에서 커피 이론 공부, 카페 업무 실습을 배운다. 한 달간 수업 태도, 출결, 테스트 결과를 평가해 통과할 경우 보노보에서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다. 커피 수업만 하는 건 아니다. 주 1회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한국어, 컴퓨터, 여행학습 등 삶에 꼭 필요한 인문학도 배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된다. 가보고 싶은 곳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카페 보노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10명이 총 6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요즘 카페 보노보에 걱정거리가 생겼다. 중고 커피머신의 수명이 다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고장이 나는 것. 10년도 더 된 기계라 좋은 원두를 좋은 기술로 커피를 내려도 커피 맛이 좋아지지 않는다. 머신을 교체하고 싶지만 카페 매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채진아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팀장은 “청소년들의 열정과 꿈을 키우고 싶은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며 “청소년들이 아픈 상처를 이겨내고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카페 보노보를 통해 아이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꿈을 키워가고 있다.  
©서대문청소년수련관



## 키가 자라서 슬픈 아이, 알제이를 소개합니다

한림화상재단 황세희 사무국장

“정말 눈 깜짝 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당시를 떠올리던 엄마는 잠시 눈물을 보였다. 2015년 9월, 아들 알제이(8)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고모에게 놀러갔다가 뜨거운 기름을 뒤집어썼다. 필리핀 마닐라 안티폴로시장엔 튀겨 파는 길거리음식이 흔하다. 날벌레를 피하려다 기름 솥을 건드린 것이었다. 알제이의 오른쪽 뺨과 가슴, 등 뒤쪽으로 온통 기름이 번졌다.

한국에서라면 응급처치를 통해 깨끗한 피부를 이식했겠지만, 알제이가 살고 있는 필리핀에선 화상전문병원이 없다. 스테로이드주사와 연고만 바른 채 1년이 흘렀다. 그 사이, 키는 한 뼘 이상 자랐다. 알제이의 온 몸엔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피부조직이 내려앉았다. 1년 사이 화상을 입은 부위는 그대로인 반면, 그렇지 않은 부위는 성장하면서 자세가



비틀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오른쪽과 목으로 연결된 화상부위가 주변 조직을 잡아당기면서, 알제이의 목은 점점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급기야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좌측) 2016년 도움 요청 당시 사진 (우측) 2017년 현재 모습 ©한림화상재단

1년 만인 지난 5월 11일, 키가 자라 슬픈 아이인 ‘알제이’가 한국 땅을 밟았다. 매달 20만원밖에 벌지 못하는 알제이 부모님 대신, ‘키다리 아저씨’로 나선 건 한림화상재단이다. 지난해 “재건수술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팔을 들어올리기도 힘들다”는 알제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현지 관계자로부터 들은 한림화상재단은 1년 동안 초청계획을 세웠다.

“알제이는 온 몸의 10%나 화상을 입어서, 최소 3번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화상 전문 의료진을 모아 수술계획을 세우고 입원 일정을 잡았다. 모금프로젝트도 시작해 개인과 기업 등으로부터 1500만원의 정성이 모였다.

드디어 5월 16일, 알제이는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수술대에 올랐다. 가장 시급한 오른쪽 뺨의 딱딱한 조직을 떼어내는 장장 5시간의 대수술을 끝냈다. 일주일 뒤인 23일, 오른쪽 가슴의 화상조직을 떼어내고 피부 재건수술까지 받았다. 2주 후엔 등쪽의 피부 재건수술이 잡혀있다. 수술과 안정에만 무려 2개월 넘게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입원 당일 알제이, 엄마, 교사의 모습 ©한림화상재단

힘든 수술 과정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알제이. 큰 눈망울로 매일 드레싱 치료를 곳곳이 받는 알제이는 9병동의 스타다.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병원에 학교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곳에 있는 게 꿈만 같아요.” 귀엽고, 의젓한 알제이를 격려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같은 병동 환자들은 십시일반 정을 나눈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알제이를 위해 빵이나 음료수 같은 간식을 나누기도 하고,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알제이를 위한 결연기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상 발생의 92%는 아시아 저소득국가에서 발생하고,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알제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환아들을 위해 한림화상재단은 2009년부터 아시아 저소득국가 화상환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현재까지 9년간 7개국 800여명을 현지에서 무료로 진료하고, 그 중 현지 수술이 불가능한 환아 45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수술을 지원한 바 있다. 알제이와 같은 환아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모금이 진행 중이다.

## 비영리 모금콘텐츠 A to Z

<b>발행</b>	2017년 10월
<b>엮은이</b>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동그라미재단
<b>발행인</b>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동그라미재단
<b>주소</b>	서울시 세종대로21길 52 조선일보 광화문빌딩 9층 더나은미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나래빌딩 3층 동그라미재단
<b>인쇄</b>	필커뮤니케이션

비영리  
모금콘텐츠  
AtoZ



---

이 책자는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와 동그라미재단이 함께하는  
비영리 리더스쿨 4기 강의를 정리한 비매품입니다.

---